

구례·신안·장성까지 전남, 코로나19 확산

확진 물리치료사 수백명 접촉 ...광화문 집회 신안 목사 확진

광주, 어제 하루 6명 확진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지난 8개월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구례·신안·장성에서 최근 사흘 동안(금·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고흥·강진·해남군을 제외한 전남 전역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뚫린 형국이다. 특히 장성에서는 요양원 입소자인 9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고, 구례에서는 노인 등 수백명을 접촉했던 동네병원 30대 물리치료사의 확진에 이어 70대 접촉자까지 추가 확진되면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에선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n차 감염' 확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28~30일) 전남에서는 모두 23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순천 9명, 광양 6명, 목포 4명, 구례 2명, 신안·장성 각 1명이다. 일별로는 지난 28일 14명, 29일 5명, 30일 4명이다. 일각에서는 일별 확진자 감소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방역당국 통제 범위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낙관하기에는 이른다.

우선 지난 28일 확진 판정 받고 전남 134번 환자로 분류된 구례 거주 30대 물리치료사 후폭풍이 우려된다. 물리치료사의 환자인 70대 여성이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데다, 해당 물리치료사가 적을 둔 동네병원에서 최근 물리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최대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지난 29일 확진자가 나온 장성 모 요양원도 긴장의 수위를 낮추기 어렵다. 전남 135번으로 분류된 이 여성은 서울에서 자녀가 다녀간 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 여성의 확진으로 해당 요양시설은 즉각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고 시설 근무자를 포함한 71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확진자를 제외한 시설 관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보수단체 주최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신안지역 60대 목사 사례도 방역당국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집회 참석 사흘째 이뤄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10일 뒤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차 검사 음성'만으로 감염 여부를 확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 122번으로 분류된 이 목사는 방역당국의 검사 요구에 "보건소는 못 믿는다"며 한때 검사를 거부했다가 지난 18일 목포 기독교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다. 당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 목사는 기침·오한 등 증세가 나타나자 스스로 2차 검사를 받았고 지난 28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일별로만 보면 확진자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검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주말·휴일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지역민께서는 언제, 어디서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번 한 주도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쓰는 기본적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10일 넘게 지역 곳곳을 돌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확산 우려도 나온다.

광주 확진자는 지난 26일 39명을 정점을 찍은 뒤 27일 17명, 28일 15명 등 두 자릿수를 이어오다, 29일 3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30일 오후 6시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3명 등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방역 전문가들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2주 가까이 광주 도심을 누비고 다니는 등 'n차 감염'을 우려할 만한 요인이 수두룩해 이번 주가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시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文정부 2인자 아닌 새 리더십 보여야”

뉴스 초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대권 꿈 이루나

대표직 위기·기회 '양날의 칼'
기존 구도 넘어서는 비전 필요

영광 출신의 이낙연 의원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60.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경쟁 상대였던 김부겸 전 의원은 21.37%, 박주민 의원은 17.85%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당내 지지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처음 치르는 당내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대표직을 거머쥐면서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이 당권을 잡음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당내 지지를 확고히 하고 대선에 나서 승리한 길'을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대표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승리는 '기회이자 위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다.

당장, 이 대표가 짧은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사태 해결은 물론 부동산 안정화 해법, 야당과의 협치, 한국판 뉴딜 안착, 각종 개혁 입법, 민생 경제 회복 등 헤아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관전 포인트는 이낙연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 '2인자'가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느냐로 쏠리고 있다. 당내 친문(친 문재인) 세력에 업혀가는 모습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 등 이낙연 대표의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당·청이 함께 윈-윈을 이뤄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적 리더십과 비전이 필요하다. 관리자형이 아닌 개척자형 리더십이 필요한 현실인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민심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강력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하락 추이를 보이

고 있는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흥행 실패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 범위지만 이재명 경기 지사에 추월을 허용한 상황이다.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비전 제시만이 당내 지지 기반 구축과 함께 대선 가도의 길을 여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이 대표 리더십의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임기 첫날인 30일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대표라는 책임을 통해 여러분께서 주신 다섯 가지 명령을 이행하는 데 신명을 바치

겠다"고 적었다. 그가 밝힌 다섯 가지 과제는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의 삶 지키기,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이다. 그가 과연 시대적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대선 가도의 길을 활짝 열어갈 것인지 호남 민심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후보가 선출됐다. 최종 득표율은 김종민 후보가 19.88%로 1위였고, 이어 염태영(13.23%), 노웅래(13.17%), 신동근(12.16%), 양향자(11.53%) 후보 순이었다. 광주 서구 을이 지역구인 양향자의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역 민심 창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임 국방부 장관에 광주 출신 서욱 발탁

문대통령, 육군출신 첫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광주 출신의 서욱(57·사진) 육군 참모총장을 발탁했다. 서 후보자는 광주 인성고와 육군사관학교(41기)를 졸업했으며 한미연합사 작전

처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후보자는 야전과 작전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은 해군, 두 번째이자 현직 장관인 정경두 장관은 공군 출신이다. 또 서욱 후보자가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육군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장관을 맡은 송영무 전 장관

장관에 임명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감관진 장관에 이어 호남 출신이 처음 국방장관을 맡는 사례가 된다.

한편 이번 원 포인트 개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총력대응 체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폭 규모의 개각은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광역시

광주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 지도를 바꿀 **6대 핵심사업**

3조 7599억원

기업의 산실, 광주의 산업단지가 **확** 바뀝니다

- 1 호남권 17년 만에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1조 2433억 투자
- 2 노후산단을 새롭게, 신규산단을 첨단으로 만드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7656억 투자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이 **속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 3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5754억 투자
- 4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광주 AI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4116억 투자
- 5 빛그린산단, 평동산단 일대에 '청정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7640억 투자
- 6 남구 에너지산단 중심 '국내 최초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7200억 생산유발효과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www.gwangju.go.kr